

Chapter2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대비

어법/어휘

01. 2010학년도~2019학년도까지의 어법 핵심선택지 개념정리 (With 해설)

#01. 수일치

01. (2014.06)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y-first century, the popularity of fine breads and pastries ② are growing even faster than new chefs can be trained. (O/X)

- 수식어구의 수식을 받는 주어의 수일치, 주어는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를 꾸밀 수 있는 말인 형용사가 수식하여 주어와 동사 사이의 거리가 길어질 수 있다. 수식어구는 정확히 묶어내는 안목이 필요하다.

[해설] 정답 X → 여기서의 주어는 the popularity 이고 of fine breads and pastries는 전명구이기 때문에 주어의 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the popularity가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are는 is로 바뀌어야만 한다.

02. (2014.06) They are looking to reclaim some of the flavors of old-fashioned breads that ④ were lost as baking became more industrialized and baked goods became more refined, standardized, and — some would say — flavorless. (O/X)

- 관계사절 내의 수일치는 꼭 선행사를 찾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앞에 있는 명사를 주어로 여기면 틀릴 수 있다. 왜냐하면 관계사와 선행사는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여 정답을 골라보도록 하자.

[해설] 정답 O → 관계사의 선행사는 맥락을 읽어보면 결국 ‘맛’이 잃어버려지는게 맞으므로, 관계사절 내의 주어는 the flavors 라고 봐야하며 이는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were로 받는 것이 옳다.

03. (2013.09) Indeed, not even its remains (C) [has / have] been found anywhere except in the stomachs of seals.4

- 소유격은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한다. His computers are expensive라는 문장이 있으면, computers의 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his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설] 정답 have → 주어인 remains를 꾸며주는 것이 소유격 its, 즉 단수이긴 하지만, 소유격은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 하기 때문에 수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어는 복수 remains 이므로 정답은 have이다.

04. (2011.06) There is a deep cavern on the island, containing the bones and arms of the Indians, who, it is supposed, (B) [was / were] buried there.

- 관계사절 내의 수일치는 꼭 선행사를 찾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앞에 있는 명사를 주어로 여기면 틀릴 수 있다. 왜냐하면 관계사와 선행사는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여 정답을 골라보도록 하자.

[해설] 정답 were → 주어 맥락상 주어가 될 것들은 the bones and arms이므로 이것들이 복수이기 때문에 were이 맥락상 맞다.

#02. 준동사/본동사 & 병렬구조

01. (2018.06) The partner only has two options. He can take what's offered or ④ refused to take anything. (O/X)

- 병렬구조는 병렬 접속사 (and, or, but)이 더 중요하다. 즉 4번 선택지 앞에 or이 있기 때문에, 병렬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refused는 어디에 걸리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can 뒤에 take에 걸리는 것인가, what 절 뒤 offered에 걸리는 것인가? 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해석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해설] 정답 X-> 병렬구조는 늘 해석 해야만 한다.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결국 or 앞에 생략된 범위를 He can 으로 볼 것인가, He can take what's 까지 로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가 거절 된 것을 취한다라는 말은 맥락상 어색하므로, He can 까지가 생략 된 것으로 봐야한다. 그러므로 앞에 조동사가 생략되었으므로 동사원형 refuse로 바뀌는게 맞다.

02. (2017.09) This overstated, often fictionalized version of nature is no more real – and yet no less real – to them than the everyday nature right outside their doors, ② waiting to be discovered in a child's way, at a child's pace. (O/X)

- 준동사 vs 본동사는 결국 한 문장 내에서 동사가 1개 이라는 논리이다.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문장 내의 문장구조를 주어와 동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장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해설] 정답 O -> , 는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본 절의 주어와 동사가 This overstated, often fictionalized version of nature is 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준동사로 위치하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분사구문으로 쓰인 waiting은 옳다고 할 수 있다.

03. (2017.06) Sometimes called brood parasites, these bees are also referred to as cuckoo bees, because they are similar to cuckoo birds, which lay an egg in the nest of another bird and ③ leaves it for that bird to raise. (O/X)

- 이 문제 역시 병렬구조이다. 왜냐하면 3번 선택지 앞에 and가 있기 때문이다. and 앞에 무엇이 생략되어 있던 것으로 볼 것인가? leave 가 어디에 걸리는가를 보면 될 문제이다.

[해설] 정답 O -> 맥락상 leaves는 lay와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leave 복수로 바뀌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어가 cuckoo birds, 복수이기 때문이다.

04. (2015.06) To make the choice to express a feeling by carving a specific form from a rock, without the use of high technology or colors, ③ restricting the artist significantly. (O/X)

- 문장 구조를 보자. 결국 다시 준동사 vs 본동사를 묻고 있는 것이다.

[해설] 정답 X -> 문장 구조를 분석해본다면 to부정사 주어가 나오고 난 다음에 동사가 제시되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준동사 restricting 이 아니라 본동사 restricts 로 바뀌어야 옳다.

05. (2014.09) A measurement system is objective to the extent that two observers (A) [evaluate / evaluating] the same performance arrive at the same (or very similar) measurements.

[해설] 정답 evaluating -> 문장 구조를 분석해보면 동격 that절 아래에서 two observers가 주어, 그리고 동사가 arrive로 제시되고 있기 때 문에 (A)파트는 준동사로 사용되는 것이 옳다.

06. (2015 수능) Furthermore, a general lack of knowledge and insufficient care being taken when fish pens were initially constructed ③ meaning that pollution from excess feed and fish waste created huge barren underwater deserts. (O/X)

- 준동사 VS 본동사는 동사가 그 문장 내에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하는 것이다. 결국 한 문장내에 동사는 하나라는 생각으로 말이다. 문 장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면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해설] 정답 X -> 문장을 읽어보면 주어는 a general lack of knowledge~ 이고, being taken은 p,p 수식어구, 그리고 when fish pens were initially constructed 는 부사절 삽입으로 문장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면 전체 문장의 동사가 없는데 그 역할을 meaning을 해줘야한다. meaning 은 meant 정도의 본동사로 바뀌어야만 한다.

07. (2014 수능) But breathing has a price. The combustion of oxygen that keeps us alive and active ② sending out by-products called oxygen free radicals. (O/X)

- 준동사 VS 본동사는 문장 구조 분석!!!!

[해설] 정답 X -> 문장을 읽어보면 이 문장의 주어는 The combustion이고 동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sends 로 바뀌는게 옳다. 다만 called 를 여기서 본동사로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called는 5형식 (call A B, A를 B라고 부르다) 로 쓰였고, 뒤에 O.C 만 남아 있는 형태이므로 앞에있는 by-products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cf) call은 크게 3형식 동사와 5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3형식의 call은 (물리적으로) 부르다, 전화하다 라는 의미라면, 5형식의 call은 call A B로 쓰여, A를 B라고 부르다 (사실상 이름 붙이다라는 느낌) 로 사용된다. 이러한 차이를 알아두면 3형식과 5형식을 구분하여 어법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08. (2014 예비) This effect, which is often overlooked, is a primary reason why people ④ do aerobic exercises establish a new metabolism and a leaner body. (O/X)

- 준동사 VS 본동사는 문장 구조 분석!!!! 2

[해설] 정답 X -> 동사는 establish, 그러므로 준동사 doing으로 바뀌어야 한다. 어렵지 않다.

09. (2013 수능) In many countries, amongst younger people, the habit of reading newspapers has been on the decline and some of the dollars previously (A) [spent / were spent] on newspaper advertising have migrated to the Internet.

- 이 선택지를 능동 vs 수동으로 읽었다면 낚시에 걸린 것이다. A-B-B형 (다시 말해, p.p형과 과거동사 형태가 같은 경우) 에는 spent 를 p.p로 오인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1) 준동사 vs 본동사 - 2) 능/수동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기로 하자.

[해설] 정답 spent -> 문장에서의 동사는 have migrated이므로 이 자리는 본동사가 아닌 준동사로 쓰는게 맞다. 한편, 이 문제를 만약에 뒤에 있는 문장구조를 보지 못하고 먼저 spent(과거 능동태) vs were spent (과거 수동태) 로 해석했다면 were spent가 의미상 자연스러우므로 were spent를 찍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오답이 나온 문항인데, 이 문항이후로 학생들은 준동사 vs 본동사부터 체크하고 문제가 없을 시, 능수동을 체크하는 것이 좋더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03. 관계사

01. (2018.06) Behavioral economists – the economists who actually study ② what people do as opposed to the kind who simply assume the human mind works like a calculator – have shown again and again that people reject unfair offers even if it costs them money to do so. (O/X)

- that VS what은 일단 that과 what이 쓰인 자리가 명사자리인지, 형용사 자리인지를 먼저 고려해야한다. 그런 다음 명사자리라는 뒷 문장의 완전여부, 완전하면 that, 불완전하면 what을 처리한다. 형용사 자리이면 무조건 that이다. 왜냐하면 관계사 what은 명사절로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해설] 정답 O → 먼저 what자리가 명사자리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이 경우에는 study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명사자리가 옳다. 그리고 뒷 문장 역시 불완전 (do의 목적어가 없음) 하기 때문에 what을 사용하는게 맞다.

02. (2017.06) Clepto means “thief” in Greek, and the term cleptoparasite refers specifically to an organism [what / that] lives off another by stealing its food.

- 이 that vs what은 명사자리에서 묻고 있는가, 형용사자리에서 묻고있는가? that VS what의 풀이는 체계화 시켜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설] 정답 that → 앞에 있는 명사 an organism을 수식하는 자리, 즉 형용사 자리이므로 관계대명사 what이 아니라 관계사 that이 사용되는 것이 옳다.

03. (2016.09) Baseball belongs to the kind of world (B) [which / in which] people did not say, “I haven’t got all day.”

- 이 that vs what은 명사자리에서 묻고 있는가, 형용사자리에서 묻고있는가? that VS what의 풀이는 체계화 시켜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설] 정답 in which → 뒷 문장의 구조가 people did not say(S+V) "I haven't got all day" (O)로 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부사의 역할을 하는 전치사+관계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

04. (2015.09) As technology and the Internet are a familiar resource for young people, it is logical ③ what they would seek assistance from this source. (O/X)

- 가주어/진주어 구문이라면 이것의 위치는 명사자리이다. 그렇다면 명사절 자리에서 that과 what이 따져야할 것은 무엇인가? that VS what의 풀이는 체계화 시켜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설] 정답 X ⇒ 뒷 무장의 구조가 완전하기 때문에 what이 아니라 that을 사용하는게 맞다.

05. (2013 수능) The ultimate life force lies in tiny cellular factories of energy, called mitochondria, ① that burn nearly all the oxygen we breathe in. (O/X)

- 여기서의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된 that이 아니다. 문장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면 that이 지금 어떤 자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문장 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야한다.

[해설] 정답 O => 여기서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energy를 수식하는 일반 관계사로 사용된 것이다. , that이라는 형태 때문에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called mitochondria, 라는 어구는 문장 사이에 삽입되어 들어간 것이고, 콤마는 거기에 딸린 것이다. 관계사 that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06. (2012.09) It had long been something of a mystery where, and on what, the northern fur seals of the eastern Pacific feed during the winter, (A) [when / which] they spend off the coast of North America from California to Alaska. (O/X)

- 여기서는 when과 which는 결국 문장 뒤 문장의 완전 / 불완전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한다. 뒤 문장이 완전하면 관계부사가 쓰이고, 뒤 문장이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가 쓰인다.

[해설] 정답 which => 여기서 뒷문장은 불완전한 것으로 봐야한다. 간혹 이런 문제가 나오면 spend off가 숙어이지 않을까? 라는 뇌내 망상을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법 문제는 대부분 학생들의 '기본상식'에 근거하여 출제한다. (물론 leisurely 문항처럼 끄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다른 힌트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spend의 목적어가 없어서 문장이 불완전한 것으로 해석해야하며, 그러므로 관계대명사 which가 위치해야만 한다.

07. (2012.06) One domain ② which this is of considerable significance is music's potentially damaging effects on the ability to drive safely. (O/X)

- which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한다. this is of considerable significance 은 완전한 문장인가?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틀렸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

[해설] 정답 X => 아마 여기서 which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은 this is 까지만 문장성분이고 of ~ significance는 전명구이므로 문장성분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of + 추상명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of considerable significance는 significant(형용사 보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한다. 그러므로 2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이 온 것이고, which 는 관계부사 where 정도로 고쳐지는 것이 옳다.

08. (2011.09) To oversimplify, basic ideas bubble out of universities and laboratories ① in which a group of researchers work together: both major breakthroughs, like understanding the genetic structure of life, and smaller ones, such as advances in mathematics or basic chemistry. (O/X)

- 전치사 + 관계대명사는 결국 관계부사와 쓰임이 같은 것이다. 결국 뒷 문장의 완전 / 불완전 여부를 따지면 되지 않을까?

[해설] 정답 O => 여기서 뒷 문장은 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부사의 역할을 하는 전치사 + 관계대명사가 위치하는 것이 옳다.

08. (2011.06) ⑤ That appears to us as simultaneous is actually a kind of “follow your neighbor” behavior moving faster than the eye can see. (O/X)

- that과 what을 구분하는 것에 가장 첫 번째 전제는 문장에서의 위치가 어디인가이다. 결국 문장의 위치가 명사자리 이기 때문에 that과 what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해설] 정답 X => 여기서 that의 위치는 주어자리이므로 명사자리이고, 여기서 뒷문장은 주어가 생략된 불완전한 구조이기 때문에 that이 아니라 what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

09. (2011 수능) Movies were first seen as an exceptionally potent kind of illusionist theatre, the rectangle of the screen corresponding to the proscenium of a stage, ③ which appear actors. (O/X)

- which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한다. 그렇다면 하자가 없는 문장인가? 그것에 대해서 꼼꼼이 생각해보도록 하자.

[해설] 정답 X => 이 당시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항이다. 여기서 which 뒤에 얼핏 보기에는 어, 문장의 주어가 없네 라고 생각되어 불완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appear은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즉 자동사에 해당하는 동사이다. 그런데 actors를 어떻게 목적어로 갖겠는가? 이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appear (V) + actors (S) 로 분석하는게 옳다. 그러므로 which 뒷 문장은 완전한 1형식 문장이 온 것으로 봐야하며 which는 where정도로 바뀌어야한다. 이렇게 도치라는 포인트가 섞여서 출제되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잘 풀어야 한다(2019학년도 사관학교 어법 문항 역시 그렇다).

10. (2010.09) I recently saw a news interview with an acquaintance (B) [who / whom] I was certain was going to lie about a few particularly sensitive issues, and lie she did.

- who와 whom의 차이가 무엇인가? 격의 차이일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격이나, 목적격이냐의 차이일 것이다. 그렇다면 뒷 문장 구조를 분석해보면 되지 않을까?

[해설] 정답 who => 이 문제는 결국 ‘격 구분’, 즉 주어가 생략되었나(주격관계사 who), 목적어가 생략되었나(목적격 관계사 whom)을 구분하는 문제와 같은데, 여기서 I was certain의 정체는 ‘삽입’이다. 즉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간 것으로 봐야한다. 그러므로 관계사 문장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주격관계사 who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

#04. 능동/수동

01. (2018.06) Many people offer an equal split to the partner, ㉔ leaving both individuals happy and willing to trust each other in the future. (O/X)

- 분사구문의 능/수동 역시 다른 능 수동과 다르지 않다. 결국 뒤에 목적어의 유무로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지 않을까?

[해설] 정답 O => 여기서 leaving은 뒤에 both individuals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능동으로 사용되는 것이 옳다.

02. (2016.09) During its first half century, games were not played at night, which meant that baseball games, like the traditional work day, (C) [ending / ended] when the sun set.

- 능동인가? 수동인가? 아니면 준동사 본동사인가? 일부로 헷갈리도록 단일 편차를 해놓았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해설] 정답 ended => 능수동으로 판단하기 전에 먼저 '준동사/본동사'부터 살필 것!! 이라고 앞에 준동사 본동사 할때부터 강조를 했었다. 이 문제 역시 능수동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 meant (V) + that (O) -> 즉 that절 내의 동사가 없기 때문에 ended가 동사로 와야 한다. 늘 능수동으로 체크하기 전에 먼저 준동사 vs 본동사부터 체크하는 습관을 기르자.

03. (2016.06) Biological clues are not essential. The extent to which they are ㉔ finding varies from animal to animal and from activity to activity. (O/X)

- who와 whom의 차이가 무엇인가? 격의 차이일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격이나, 목적격이냐의 차이일 것이다. 그렇다면 뒷 문장 구조를 분석해보면 되지 않을까!

[해설] 정답 X => finding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문장에서 수동태로 사용되는 것이 옳다.

04. (2015.09) For example, using a tape measure to determine the distance a javelin (B) [threw / was thrown] yields very similar results regardless of who reads the tape.

- 능동태인가 수동태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많이 구조를 따지지는 말자. 이 문제는 오히려 해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일 수 있다.

[해설] 정답 X => a javelin (투창, 주석으로 주어졌던 단어) 는 던져져 지는 것이므로 was thrown이 옳다.

#05. 최근의 TREND - 해석으로 도움받는 어법

01. (2017 수능) They do not worship youth. They have no memories about what the aged once ⑤ was and greet them as if they were children. An old man holding a puppy can relive a childhood moment with complete accuracy. His joy and the animal's response are the same.

정답 - were : 이 문제는 두가지 풀이가 가능하다. 먼저 the aged 라는 것이 the+형용사가 복수 보통명사를 의미한 다는 것을 알고있어서, 나이든 사람들이라서 복수라고 생각하여 were을 택해도 되고, 아니면 이 문장을 해석하여 결국 the aged가 주어이고, 뒷 문장에서 greet them as if they were children(그들이 마치 아이들인 것처럼 그들을 대해준다)라고 해석을 해보아서, 결국 them이 문장 앞에 나오는 They have no memories에서의 they와 다르다는 것을 catch 하면, 결국 the aged를 복수 명사 them으로 받고 있으므로 복수 명사구 나라고 생각해도 괜찮다.

02. (2016.09) The pace of the game is therefore leisurely and (A) [unhurried / unhurriedly], like the world before the discipline of measured time, deadlines, schedules, and wages paid by the hour.

- 이 문제 역시 두 가지 풀이가 가능하다. 먼저 병렬구조 문제이므로, and 앞에 걸려있는 leisurely의 품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으면서 풀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지엽적인 포인트는 평가원이 추구하는 바는 아닐 것이다. be동사의 중의성에 생각해보자. be 동사는 먼저 '있다' (1V에서 사용되며, 존재성등을 나타냄)과 '이다' (2V에서 사용되며, 같다, equal을 나타냄) 로 각각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the pace of game 'is'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그것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이 문장이 1형식인지, 2형식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답 : unhurried - comment에 있는 풀이 대로 풀자면, the pace of game (게임의 속도)는 '있다'로 해석되는 것 보다, 게임의 속도는 '여유롭다' 로 '이다'로 해석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2형식 문장으로 봐야하며, 이 문장에서도 앞에 the pace of game is 가 생략됐다고 보아서 보어자리라고 해석해 unhurried를 찍는 것이 옳다.

#Bonus. 어법 연습문제 29번(사관학교 2019학년도 어법문제) 해설 - B Point의 '도치'와 관련하여.

* 원문항을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해설을 읽지마시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신 후 해설을 읽어주세요!

[2019학년도 사관학교 Challenge]

If you want something to happen in your life, you need to focus on it. Without focusing, and believing in what you want to achieve, you cannot accomplish the task at hand. This law of focus reminds you not to give up, no matter how (A) exhausted/exhausting the task may seem. By continuing to believe in it and focusing on it, you clearly stand a better chance of achieving the desired results. Through the law of energy and attraction, you will attract into your life (B) that/what you give energy to and focus on. A magnifying glass used to focus the sun's energy can start a fire. You can manifest what you want through your focused energy of thought and belief. You will continue to be faced with challenges, struggles and mishaps as other laws, such as the law of ups and downs, (C) are/is working in the background. You give power and life to whatever you focus on. You bring magic into what you want as you increase its vibration through your focus. [3점]

- | (A) | (B) | (C) |
|--------------|------------|-----------|
| ① exhausted | that | are |
| ② exhausted | what | is |
| ③ exhausting | what | are |
| ④ exhausting | what | is |
| ⑤ exhausting | that | are |

[해설] 이 문항이 아마 절대평가 이후 출제된 모든 평가원, 사관학교, 교육청 문항 중 독특하고 가장 테마있게 출제된 문항이 아닐까 싶다.

먼저 어렵지 않은 (A) 파트부터 해설을 해보자면, (A)파트는 감정동사(감정을 담고있는 동사)의 능/수동을 묻고 있는데, 흔히 중학교 때 사람이면 p.p, 사물이면 ing로 '잘못' 배운 어법이다. 감정동사는 그 감정을 통해 어떤 것에 대해 설명이나 묘사를 하고 있으면 ~ing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감정을 직접 느끼는 것이면 p.p를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그 일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설명이나 묘사'를 하고 있으므로, exhausting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

(C) 파트는 혼한 수일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as 접속사 뒤에 문장에서 먼저 , , 삽입어구인 , such as the law of ups and downs,를 묶고나면 other laws가 주어로 남으므로 동사를 are 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삽입어구가 제시되면 묶어주는 것이 어법을 푸는데 가장 좋은 태도이다.

문제는 바로 (B) Part이다. (B) 파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문장을 잘못 분석했다면 문제를 틀릴 수 밖에 없다. you will attract into your life (B) that/what you give energy to and focus on.에서 that과 what이 앞에 있는 life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여 that을 찍었다면 바로 오답행 열차를 타는 것이다. 이 문제는 '문장'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you will attract into your life..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흔히 우리 영어를 배울 때, attract는 attract A into B(A를 B로 이끌다) 정도의 덩어리로 외웠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목적어, 즉 A에 해당하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라도 수동태인가? 확인해보니, 아니다. 목적격 관계사인가? 확인해보니 역시 아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바로 '도치'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ttract는 ~을 이끌다라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져야만 한다. 이 문장에서도 역시 그렇다. 그렇다면 그 목적어가 바로 어딘는가? 바로 (B) 파트의 that/what이 그 주인공이다. 즉 여기서 (B) PART에서 물어보는 that/what은 life를 수식하는 형용사 자리가 아니라, attract의 목적어 자리라는 것이다. 다만 뒤로 도치되었을 뿐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렇듯 문장의 완전/불완전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불완전한 구조로 봐야만 한다. 정답은 what.